

 국가브랜드진흥원 <small>The Institute of Nation Brand Promotion</small>	보도자료 국가브랜드진흥원 (www.nbp.or.kr)	작 성	국가브랜드진흥원 연구본부
		담당자	임수연 연구원
		전 화	02-360-0793

국가브랜드대상 김수현, 김연아, 아모레퍼시픽그룹 선정

(NBP=2015/12/14) [보도자료] 국가브랜드진흥원은 오는 12월 17일(목)에 국회의원회관에서 '2015 국가브랜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본 컨퍼런스는 이예리사 의원, 전순옥 의원, 국가브랜드진흥원이 주최하며 Matti Heimonen 주한 핀란드 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기조연설과 함께 스포츠, 문화, 기업 등 각 분야별로 선정된 국가브랜드대상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가 브랜드 대상'은 개인 및 기업 브랜드가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그 공로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국가 브랜드 활동을 장려하여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2015년 국가 브랜드 대상 문화 부문에는 배우 김수현, 스포츠 부문에는 김연아 선수가 선정되었고,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가장 크게 공헌한 기업 부문에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선정되었다.

배우 김수현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프로듀사'의 주연 역할을 맡아 중국 등 해외에서 드라마 흥행을 일으켰다. '프로듀사'의 경우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에 드라마가 판매되어 중국 판권 판매 수입으로만 4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중국 상해 동방 TV에서 조사한 '중국 연예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Top 5 순위에 들었던 점 등 개인의 브랜드 파워가 인정되어 문화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로서 그랜드슬램과 올포디움(all-podium) 기록을 달성하는 등 그 실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며,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되었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공헌한 점 등이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4년 글로벌 사업 성과 매출로 8,325억원을 달성했고, 특히 아모레퍼시픽그룹이 2010년부터 진행해 온 '설화수 나눔 이불 자선 행사'와 같은 다양한 사회 공

현 활동은 해외 소비자들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 대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국가브랜드진흥원에서는 국가브랜드대상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국내의 대중적인 인기보다는 개인과 기업의 브랜드가 해외에서 갖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하였다. 국가브랜드진흥원 최유진 부원장은 “2015 국가브랜드컨퍼런스의 국가브랜드대상 시상을 통해 국가 브랜드 진흥과 국가 브랜드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을 확산시켜 개인 및 기업의 국가 브랜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하였다.”라고 말했다.

<끝>